

햇빛·바람이 주는 기본소득...영광군, 전국 첫 조례 제정

모든 군민 소득 수준 상관없이 생활 안정 현금·지역화폐 정기적 지급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개발 이익 군민에 되돌려주는 상생 모델 구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핵심 공약인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뒷받침하는 조례안이 영광에서 처음으로 제정·공포됐다.

영광군은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공유부(共有富) 기반 기본소득 도입을 골자로 한 ‘영광군 기본소득 기본 조례 (기본소득 조례)’를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부터 시행된 영광군 기본소득 조례는 모든 영광군민에게 소득 수준 등과 관계없이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일정 금액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햇빛·바람·바다를 기반으로 한 태양광과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통해 얻은 공유 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군민에게 되돌리는 상생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본소득 조례에 따르면 영광군 기본소득의 기본 이념은 ‘모든 군민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 ‘문화 향유 촉진’,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 ‘기본소득 정책 수립’, ‘개별적·정기적 지급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등이다.

영광군은 기본소득 조례 제정에 앞서 전국 최고 수준의 에너지 공유부를 활용한 영광형 기본소득 이행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제’를 법제화하고, 올해 1월에는 기본소득 전담팀을 신설해 관련 부서 간 ‘기본소득 협력단’을 운영함으로써 기본소득 제도 도입의 핵심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기에 ‘영광형 기본소득 이행’을 위해 ‘발전사업 주민 참여 이익 공유제 활성화’, ‘태양광 발전 햇빛 소득 발굴’, ‘해상풍력 발전 바람 소득 발굴’ 등을 주요 과제로 정하고 기본소득 지급 모델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기본소득 조례 제정으로 영광군 기본소득 정책의 본격적인 시작을 전국에 알리게 됐다”라며 “시행착오가 따르겠지만 군민 행복을 위한 기본소득 모델을 반드시 정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영광군 백수읍 하사리 일원에 들어선 국내 최대 규모의 영농복합형 풍력발전 단지(174MW)와 태양광 발전단지(154MW) 전경.

<영광군 제공>

진도 올 물김 생산량 13만 8868t...지난해보다 33% 증가

위판액도 2490억원 역대 최고

진도군이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다시 한해 역대 최대 물김 위판액 기록을 경신했다.

진도군은 전국 최대 김 양식장 1만6043ha, 20만 3147척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진도군의 올 물김 생산량은 13만 8868t으로 지난해 10만 4378t보다 33% 증가했다. 위판액 또한 2490억원으로 지난해 2284억원에 비해 9% 증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군은 올해 종자 불이기(재묘)를 하는 초기에 질병이 적게 발생하고 안정적인 바다 상황(해황)으로 김 생산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이외롭게 김 수출액이 2년 연속 1조원을 달성하는 등 해외에서 한국 김이 호평을 받으며 물김 수요가 증가한 것도 중요한 요인이 됐다고 덧붙였다.

진도 김은 냉수대가 흐르고 있어 적조가 없는 청정 바다에서 생산돼 미네랄과 칼슘이 풍부하고, 몸의 독소 배출과 골다공증 예방에 좋은 ‘검정 먹거리(블랙푸드)’로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진도군은 김 산업 진흥구역 지정 사업비 50억원, 김 활성처리제 지원사업 5억원 등 김 양식 어



진도군 의신면 접도항 현지에서 물김 위판이 진행되고 있다.

<진도군 제공>

가에 대한 지원을 위해 1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어가의 경영 안정에 힘쓰고 고품질의 김 생산을 지원하고 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어업인들이 어려운 상황이 있었음에도 슬기롭게 잘 해결해 나간 것에 대해 감

사하다”라며 “2026년에도 ‘전국 1위 김 생산지’의 위상을 지킬 수 있도록 김 품질의 향상과 생산량 증가를 위해 앞으로도 아낌없는 행정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영암군 지급 조선인력 정착금 ‘월출페이’ 지역경제 도움

74%, 가맹점 100여곳서 사용

영암군의 지역화폐 ‘월출페이’가 조선업 신규·재취업자의 지역정착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영암군은 올해부터 ‘조선업 신규 및 재취업자 이주정착금’을 영암형 지역사랑상품권 ‘월출페이’로 지급하고 있다.

2022년부터 전라남도와 함께 조선업 전입 인력에 월 25만원씩 12개월 동안 총 300만원의 이주정착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지역화폐로 전환해 지원하고 있다.

‘월출페이’ 대행업체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이변달 9일까지 지역에 풀린 이주정착금은 442만원이다. 지급된 600만원 월출페이가 중 최소 74%가량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입된 셈이다.

지역화폐는 외식업체, 생필품 판매업체, 의료가 관 등 영암 가맹점 100곳 이상에서 사용됐다. 마트와 편의점의 이용 비율이 높고, 식당과 주유소, 병·의원과 약국, 이용숙박업 등에서도 다양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영암군의 이주정착금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전입·취업한 이들에게 지급된다. 조선업 신규 취



영암군 지역화폐 ‘월출페이’가 조선업 신규·재취업자의 지역정착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조선소 선박용접 작업 모습.

<영암군 제공>

업자나 조선업 2년 이상 종사 경력의 재취업자가 영암군출페이를 ‘고시공고’란의 9 제출서류를 작성해 기업지원과에 방문·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김명선 영암군 기업지원과장은 “영암 쌀 소비, 지역화폐 구매 등 대불산단 조선업 기업들이 지역

에서 생산된 부를 지역경제에 먼저 투입하는 지역 순환경제를 주도하고 있다”면서 “이주정착금 제도를 포함해 기업과 직원, 지역사회가 상생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영암=전봉원 기자 jbh@kwangju.co.kr

목포시, 출산 가정에 바구니 카시트 무료 대여

왕초보 부모 탈출 프로젝트 가동

목포시가 초보 부모를 위한 맞춤형 지원책으로 ‘바구니 카시트 무료 대여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바구니 카시트는 신생아 외출에 꼭 필요한 안전용품이다. 신생아 시기에 단기간 사용하는 바구니

카시트를 대여해 경제적 부담이 경감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바구니 카시트 대여사업은 목포시고향사랑기금으로 조성된 왕초보 부모 탈출 프로젝트 사업의 하나다. 대여사업뿐만 아니라 임신부 보습프로그램 제공과 초보 부모 요리교실 등 맞춤형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바구니 카시트 대여를 원하는 가정에서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출생신고 전일 경우 출생증명서 포함)을 준비해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방문하면 된다.

목포시보건소 관계자는 “바구니 카시트 대여사업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기대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임신·출산 친화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신안군 5년간 659억원 투입 농촌재생사업

농식품부 ‘농촌협약’ 사업 선정

신안군이 어촌지역 최초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한 ‘농촌협약’ 사업에 선정됐다.

농촌협약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권 단위로 협약을 체결해 농촌 정주 여건 개선과 공간을 체계적으로 재구조화하는 데 공동 투자를 이행하는 제도다.

협약을 통해 신안군은 향후 5년간 중부재생생활화지역(압해읍, 자은면, 압태면, 팔금면, 안좌면)에 최대 659억 원을 투입해 노후화된 정주공간 정비, 취약지역 개선, 특화지구 조성 등 농촌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신안군은 올해 하반기 중부생활권 세부 사업계

획을 수립하고 내년 초 농식품부와 공식 협약을 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신안군 선정은 해수부가 관할하는 어촌지역 최초의 농촌협약이라는 점에서 섬·어촌 복합지역 농촌공간 재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제시하고 농어촌형 정주 모델을 구현하는 선도적인 사례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농촌협약으로 섬과 어촌이 중심이 되는 지역에서도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정주 여건 개선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이라며 “섬 주민 생활에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실생활 밀착형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지난 9일 영암군 군서면 구림마을에서 새롭게 조성된 전통 한옥 숙박시설 ‘구림한옥스테이’가 개관식을 가졌다.

<영암군 제공>

영암군, 구림마을에 전통 한옥 숙박시설 개관

체류형 문화관광 거점 기대

영암군은 군서면 구림마을에 새롭게 조성된 전통 한옥 숙박시설 ‘구림한옥스테이’가 최근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구림한옥스테이는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10억원과 군비 5억원 등 15억원을 투입해 전통 한옥의 고즈넉한 멋과 현대적인 편의성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재구성됐다.

내부시설로는 넓은 마당을 품은 한옥독채 5동을 포함한 서비스 공간으로 구성됐으며 단순한 숙박 기능을 넘어 전통문화 체험, 커뮤니티, 휴식 공간 등을 함께 갖춘 복합형 한옥 문화공간이다.

특히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함께 머물며 전통문화를 경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구림마을의 정체성을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는 문화적 플랫폼으로 기능할 예정이다.

운영을 맡은 영암문화관광재단은 그동안 기찬랜드 내 대표 숙박시설 ‘기찬재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며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장기 체류형 관광모형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또 전남도가 지원하는 ‘구림마을 헤리티지 프로젝트’와 연계해 지역 내 소비 확대 및 인근상권과의 시너지 효과 등 지속가능한 지역 관광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암=전봉원 기자 jbh@kwangju.co.kr

김대중 노벨평화상기념관 ‘평화비전스쿨’ 운영

목포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이 전남 지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25 평화비전스쿨’을 운영한다.

평화비전스쿨은 교육부 인증 ‘진로체험제’로 지정된 것으로 다양한 직업군의 전문가를 초청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 인권, 평화 사상을 널리 알리고,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의 진로역량 강화를 목표로 특강한다.

올해 강연에는 ‘재심 전문 변호사’로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 독도 전문가 호사가 유지 교수, 김대중 대통령의 연설 비서관을 지낸 강원국 작가, 황민구 법영사분석가 등 각계 명사들이 참여한다.

오는 21일 목포청호중학교를 시작으로 총 15개 학교가 차례대로 참여할 예정이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